선원불사 모연문





법주사 총지선원은 경허선사, 만공선사로 이어지는
금오선사의 수행가풍이 살아 숨 쉬는 수행처로
지금도 깨달음을 구하는 전국의 많은 수행자들이
정진을 위해 찾는 수행처입니다.
금번 법주사에서는 이러한 수행공간인 총지선원이
많이 낙후되어 수좌스님들의 정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원불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공간인 선원을 보수하는 불사는
시절 인연이 없이는 불사에 동참할 기회가 닿기 어려운 불사입니다.
법주사 총지선원의 불사에 동참 인연으로 무량복덕 지으시고
불사의 인연공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을
축원드립니다.

■ 선원불사 계좌 : 농협 351-0328-7909-53
■ 문 의 : 043-543-4755 (원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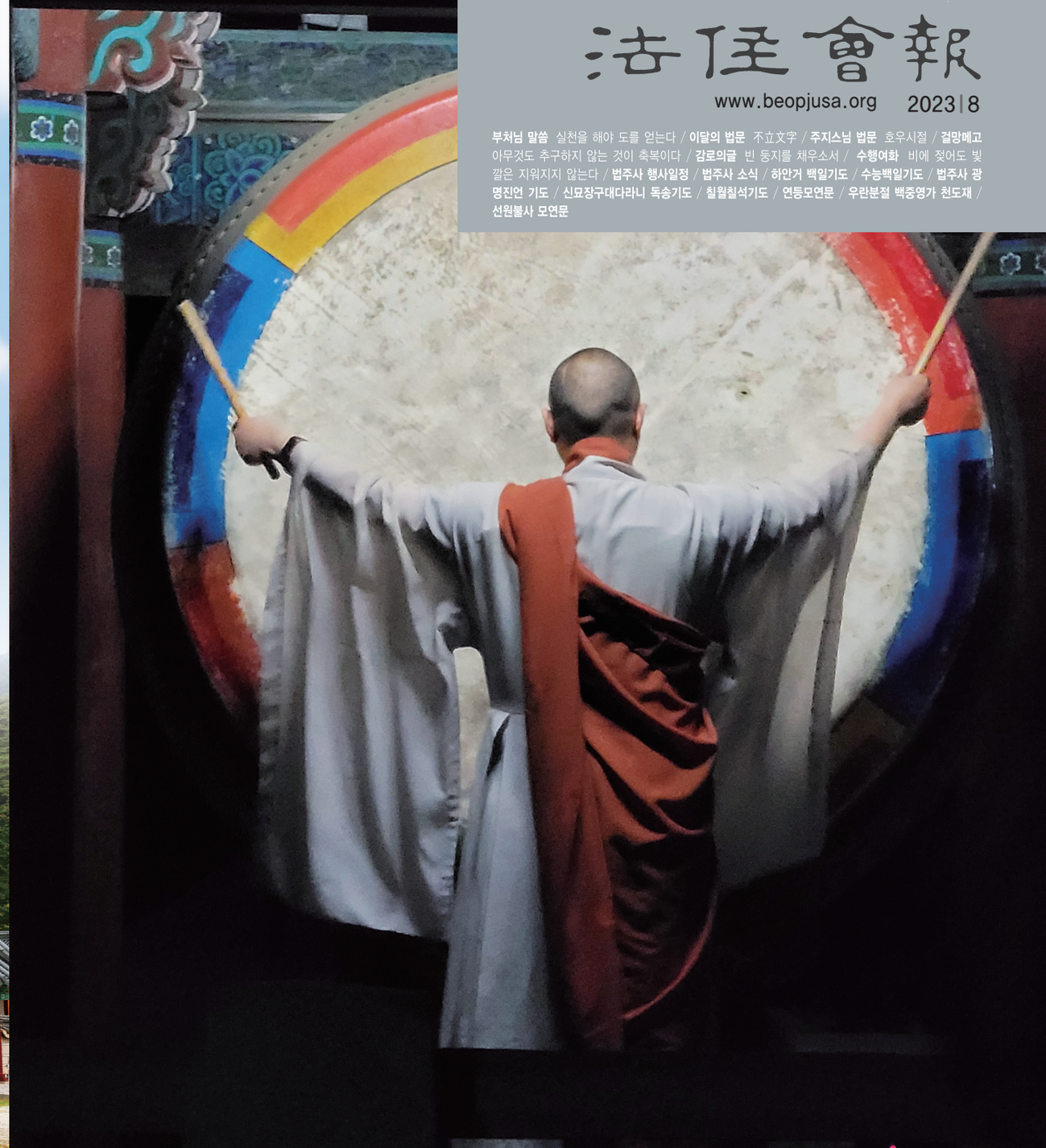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3 | 8

부처님 말씀 실천을 해야 도를 얻는다 / **이달의 법문** 不立文字 / **주지스님 법문** 호우시절 / **걸망메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 **감로의글** 빈 동지를 채우소서 / **수행여화**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소식** / **하안거 백일기도** / **수능백일기도**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칠월칠석기도** / **연등모연문** / **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 **선원불사 모연문**



●●부처님 말씀

실천을 해야 도를 얻는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실 때 주리반특가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본래부터 암둔闇鈍하여 오백나한五百羅漢이 날마다 가르쳐
삼 년이 되었으나 한 글귀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매한 줄 알더니 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한 글귀를 읽어주시되 입 지키고 마음 닦아 몸 바로 지켜라.
이렇게 행하는 자 지혜를 얻느니라.
이러한 한 글귀를 일러주시었더니 주리반특가 비구가
이 법문을 듣고 홀연히 나한도羅漢道를 깨달은 후
그 뒷날에 있어 바사익 왕께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공양청장供養請壯을 하였기에 부처님께서 반특가로 하여금
바루를 가지고 뒤에 따라오데 신통神通을 놓지 말라.
신통을 놓으면 바사익 왕이 놀란다고 하니 반특가가 물으시되
어찌 그러합니까 하였더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되
반드시 많이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행하는 것이 제일이니라.
많이 배워서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이익이 있겠는가 하시고 게송을 설하시되
일천 권의 경을 외워 그 뜻을 모를진대
오히려 한 경을 읽고 의지한만 못하리라 하시고,
많은 경전을 외우는 것보다 한 글귀라도 듣고 알아서
실천을 해야만 곧 도를 얻는다 하셨다.

〈법구경 술천품〉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3 8 | 통권 379호



2 부처님 말씀 실천을 해야 도를 얻는다
4 이달의 법문 불립문자不立文字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8 주지스님 법문 호우시절好雨時節 정도 스님
10 걸망메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진정 스님
12 감로의글 빈 둥지를 채우소서 장산 스님
15 수행여화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현진 스님
18 법주사 행사일정
19 법주사 소식 / 법주사 불교전법회관 건립불사 안내
20 하안거 백일기도 / 수능백일기도
21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칠월칠석기도
22 연등모연문
23 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24 선원불사 모연문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7(단기4356)년 8월호 통권 379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不立文字

지명대종사 법주사 조실



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는 깨친 듯하다가도 실지 경계에 다다르면 그만 아득하게 된다.
이는 말과 행동이 서로 틀린 것이다. 생사를 막아내려면 한 생각을 탁 깨뜨려야 비로소 생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생각을 깨친 뒤라도 반드시 밝은 스승을 찾아가 눈이 바른가를 점검받아야 한다.
옛 어른은 말씀하기를 '다만 자네의 눈이 바른 것만 귀하게 여길 따름이지
자네의 행실을 보려고 하지 않네.'라고 했다.
서산대사가 〈선가귀감〉에서 이르신 이 말씀은 공부하는 사람이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특히 글이나 몇 줄 읽었다고 불법을 다 아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서 큰 깨우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불교 공부는 말이나 문자를 배우는 공부가 아닙니다. 선종에서 불립문자不立文字를
강조하는 것은 말이나 문자에 현혹되어 공부에 소홀한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들을 때는 그럴듯하다가도 듣고 나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누가 와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하며 위로의 말을 많이 해 주었다고 해서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말로는 다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문의 도의국사, 실상산문의 홍척국사, 동리산문의 혜철국사가 찾아가
선법을 배운 서당지장西堂智藏화상은 학문에서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선승이었습니다.
이 스님은 마조도일의 제자로서 선원청규를 제정해 선문을 크게 일으킨 백장회해百丈懷海와
동위입실同位入室한 사람입니다.
마조대사는 두 사람을 평하되 '경은 창고(藏:지장)로 돌아갔고 선은 바다(海:회해)로 돌아갔다.'고 할 정도로
신뢰가 켰습니다. 스님은 경학에도 남다른 조예가 있었지만, 그것은 자랑하거나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그런 스님인지라 남 앞에서 유식을 자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 교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예화는 스님이 유식을 자랑하는 속인들을 어떻게 혼내 주고 가르치는지를 말해 줍니다.
어느 날 글깨나 읽고 선지식을 두루 방문한 수재秀才라는 사람이 찾아와 천당과 지옥이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스님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또 삼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스님은 물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건방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경산법흠徑山法欽 화상에게 물어보았더니 화상은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대에게 아내가 있는가?"
"있습니다."
그 대답을 기다렸다가 스님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경산 화상은 안팎을 잘 다스려 이치와 행이 구족 하시니 일체가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그대는 삼계의 범부로서 처자를 껴안고 사는 지옥찌꺼기인데 어찌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가.
만약 네가 경산 화상처럼 산다면 없다고 해도 좋으리라."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서尙書 벼슬을 하는 이호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기다리는 사이
그 절에 있던 어떤 납자에게 법력을 시험하느라고 마조 대사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물었습니다. 납자는
"어떤 때는 마음이 부처(是心是佛)라 하시고, 어떤 때는 마음도 부처도 아니다(非心非佛)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두 형편없다면서 빈정댔습니다.
조금 뒤 화상이 외출에서 돌아오자 이호는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호!"
화상이 질문하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네"
하고 대답을 하자 스님은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북과 피리소리가 나는구나."
〈전심법요傳心法要〉라는 유명한 책을 남긴 황벽희운黃檗希運선사가 상공 배휴를 만나 혼내준 얘기도
유명합니다. 화상은 백장 선사의 법을 이었는데 한때는 신분을 숨기고 제방을 편력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해 화상은 홍주洪州 용흥사龍興寺라는 절에서 마당이나 청소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홍주의 자사인 배휴裵休가 찾아와 어떤 납자와 이런 문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영각影閣 안에 있는 그림이 무엇이오?"
"고승의 영정이외다."
"형상인즉 볼 만하나 고승은 어디에 있소?"
납자들이 대답을 못 하고 머뭇거리자 배휴가 물었습니다.
"이 절에는 선승이 없소?"
"근래에 한 스님이 와 있는데 아마도 그가 선승인 것 같소이다."
배휴는 그 선승을 만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납자들이 황벽스님을 모셔오자 배휴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벽스님은 큰 소리로 자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배휴!"
배휴가 엉겁결에 "네"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고?"배휴는 이 말에 바로 귀가 열렸습니다.
배휴는 그 자리에서 제자의 예를 올리고 조석으로 문안하였습니다.

그 후 황벽스님은 배휴의 청을 받아들여 완릉의 개원사, 홍주의 대안사에 머물면서 교화를 폈는데
이때 그 문하에서 저 유명한 임제의현이 배출되었습니다.
지금 제방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완릉록〉과 〈전심법요〉는 이 무렵 배휴가 황벽스님을 찾아뵙고
문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유식함을 자랑하다가 스님에게 혼난 사람으로는 팔대 문장가로
소문이 높았던 소동파蘇東坡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형남에 있을 때 옥천사에 승호承皓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도예道譽가 아주 높은 분이었습니다.
동파는 스님의 법력을 시험해 볼 요량으로 어느 날 옥천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잔 내놓고 물었습니다.
"공부가 높으신 대인 같은데 존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나의 성은 칭가秤哥라고 합니다."
"칭가라니 무슨 뜻입니까?"
"천하 선지식의 법력을 달아보는 저울이란 말이외다."
소동파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승호스님이 대갈大喝을 했습니다.
그 통에 소동파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칭선생, 이 고함소리는 몇 근이나 되는지요?"
소동파는 그만 말문이 막혀 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법을 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다음부터는 강호를 돌며 큰스님의 무게를 다는 일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무릇 모든 지식이란 이와 같아서 어떤 경계를 만나면 쓸모없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지식이란 기본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 남의 머리를 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지혜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바른 깨달음을 통해 얻을 수 있으니 더 이상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기 바랍니다.

虛空境界豈思量　허공 경계를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大道淸幽理更長　큰 도는 크고 맑아 이치 또한 깊나니
但得五湖風月在　오호의 풍월을 알기만 하면
春來依舊百花香　봄이 올 때 여전히 꽃향기 가득하리라.

언구言句에서 불법을 구할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호에서 풍월을 얻으려면 먼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온몸으로 불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스님들이 비록 문자나 언구가 부족하더라도 그 안목이 어떤가를 살펴 배워야 할 것입니다.

호우시절 好雨時節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일 년 중 한번
여름이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기거나 문전박대하여도
그 손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올해 유독, 이 장마라는 손님은
우리들의 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고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 가뭄으로 걱정하며 비구름을
간절히 원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장마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때를 알고 오는 비는 좋은 비라고 했던가요.
세상 모든 것이 결국 적당한 때와 필요한 만큼이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을까요.
긴 장마 속에 자신을 돌아볼 좋은 때입니다.



걸망메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다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달마는 4세기, 남부 인도에 있었던 팔라바스 제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팔라바스 제국은 매우 큰 나라였다.
그는 그 나라 황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상황을 지켜볼 만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지성 때문에 부왕은 그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지만,
그는 결국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다.
달마는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부왕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하실 수 없다면,
그때는 나의 길을 막지 마십시오. 죽음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찾아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너를 막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죽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탐구를 계속하라.
그는 이 세상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결심한 것은
단지 세속적이고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의 모든 관심은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이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육체의 죽음을 자신의 종말로써 맞이해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사실 진리를 구하는 모든 구도자가 죽음의 문제를
놓고 분투하고 있다. 러셀은, 죽음이 없다면
종교도 없다는 말을 했다. 그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종교는 드넓은 바다와 같다.
그것은 죽음의 비밀뿐만 아니라 축복과 진리도
찾고 있다. 또한, 삶의 의미도 찾고 있다.
그것은 매우 많은 것을 담고 있다.
하지만 러셀의 말은 확실히 옳은 면이 있다.
만약 죽음이 없다면 매우 극소수의 사람만이
종교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데에 하나의 커다란 동기가 된다.
이처럼 달마의 출가와 그의 사상적 바탕은
석가모니의 출가와 같이 삶의 목적이 너무도
닮았고 확고하다.
달마의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은 달마의 스승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이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구니다.
프리기야타라는 스승의 권유로 중국으로 전법을
전하러 왔던 것이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프리기야타는 달마에게 중국에는 많은 사원과
스님이 있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는 없다.
선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라.
이 말에 달마는 주저 없이 험난한 사막을 지나
중국으로 왔고 중국불교라 칭하는 선불교의
초조가 되었다.
달마에 대한 세 번째 사실은, 중국의 양무제와의
대화에서 무제의 공덕에 대해 아무런 공덕도 없고
또한 무왕의 업적에 대해 스스로가 공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여
당황케 한 사실이다.
전등록에 보면 마조스님이 제자 남악스님에게
가르침을 주는 구절이 있다.
오로지 좌선만을 통해 부처를 얻겠다는 제자에게
마조스님은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앉아 있는
부처를 배우는가? 만일 좌선을 배운다면 좌선은
앉는 데 있지 않다. 만일 앉아 있는 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는 일정한 형상이 아니다.
머무를 곳이 없는 법에 대하여 취하고
버리는 생각을 내지 말라. 그대가 만일 앉아 있는
부처가 된다면 그는 부처를 죽이는 일이다.
앉는 일에 집착한다면 참다운 이치를
통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불교의 핵심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달마이래 중국에서는 많은 선지식이 나왔고
그의 가르침으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빈 둥지를 채우소서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거사문승지고향居士問僧之故鄕
가가가하처고향呵呵呵何處故鄕
부모형제출애류 父母兄弟出愛流
무진법계시오향無盡法界是吾鄕 – 長山 –

어떤 거사가 묻기를 스님 고향이 어디요?
우습다, 어디가 고향일까!
부모형제 사랑하는 무리에서 벗어났으니,
다함없는 우주 법계가 나의 고향이오. – 장산 –

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부모가 나를 끝까지 거두어 주는 것은 아니다. 병아리나 강아지도 태어나서 두 어달이 넘어가면 독립하라고 어미가 곁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들어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란 말이 있다.

자녀를 돌보던 엄마가 장성한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심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이 늘 함께할 것만 같았던 자녀들이 떨어져 독립할 때, 허전함, 우울함, 절망감 등으로 밥맛을 잃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며 공연히 눈물이 흘러내리기도 한다.

이른바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이름한다. 이런 증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종종 나타나는데, 함께 개울에서 살던 오리 내외가 수놈이 야생동물에게 물려 죽었는데, 암컷 오리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수컷 오리 사체를 3개월 이상 돌보는 것을 TV에서 보았는데, 결국 동물학자들이 불쌍히 여겨 다른 오리 사육장에 옮겨 주는 것을 보고 많은 시청자가 울먹였다고 전해진다.

나이 오륙십대가 넘어서면 빈 둥지 증후군이 서서히 오기 시작한다. 늙어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고 한다.

첫째는 적당한 운동과 명상으로 건강을 지키고, 둘째는 다양한 계층의 만남의 친구를 만들라 한다. 죽마고우로부터 젊어서의 친구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아프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친구가 서서히 사라질 때, 허전함이 바로 빈 둥지 증후군이다. 셋째는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종교적 수행을 체험하라다. 종교적 수행을 통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종교행사에 동참하여 맑고 아름다운 기운으로 빈 둥지를 찬란하게 꽉 채우는 것이다.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가 아닌가!

요즘은 도시나 시골에서도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 많다. 물론 자식들이 있지만 다 도시에서 생계를 꾸려



가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나머지 한 분은 입맛을 잃고 영양실조로 고독사孤獨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선진국이 더 심하다 한다.

스님이 어려서 중학교 다닐 때, 시골에 살았는데 과거 50여 년 전에도 우리 할아버지가 70여 세에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그해 육 개월도 못 되어 돌아가시는 것을 스님은 보았다.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살다가 돌아가셨다. 사랑하던 임을 보내고.

15년 전에 L 교수님과 중국 신장성 우루무치를 거쳐서 천불동과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 천산남로로 해서 실크로드를 간 적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 날도 덥고 해서 교수님이 시원한 맥주 한잔하자고 권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한 시간 정도 더위를 달래고 있는데 그때,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고향에 죽마고우가 간암으로 별세했다고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빨리 부조금을 보내라'하고 그 교수님이 밤새 두어 시간을 슬피 울어대는데, 술기운도 한몫한 것 같으나, 마치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슬퍼하였다. 옆에 있는 필자가 그 슬픔과 친구를 잃은 허전함이 절절히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요즘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지내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울까? 그대가 바로 60~70대(아직 노인은 아니

고)라면? (요즘의 노인은 80세 이상으로 본다.)

여러분이 불교 수행을 잘해서 8지 이상의 보살이 된다면, 문제는 아주 다르다. 8지 보살은 색자재부사의변역생사(色自在不思議變易生死: 죽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하여 몸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경지)를 하는데 모두 사람이 수행하여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니, 한번 도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보살의 지위는 초지初地부터 10지까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8지 보살일까? 초지보살부터 깨달은 이라 하며 불교적 수행에서는 성인의 지위이긴 하나, 7지 보살까지는 세속의 정情과 경계에 끄달려 도로 물들어 퇴타頹惰하여 범부중생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8지 보살은 불퇴전不退轉의 위位로써 퇴타가 없어 인연 따라 중생을 제도하고 장차 결정코 성불하여 물러섬이 없기 때문이다.

8지를 다른 말로는 '부동지不動地' 또는 '동진지童眞地'라고 합니다. 또는 '역지지力持地' 혹은 '무공용지無功用地'라 합니다. 부동지란 참 지혜에서 물러나지 않는 연고며 얻기 어려운 자리라는 뜻이다.

'동진지'라 함은 모든 허물을 여의는 연고며, 무생법인無生法忍을 터득했으니 수연방광隨緣放廣 임운자재任運自在하더라도 필경에 성불하여 부처를 이루는 경지다. 8지 보살을 무학위無學位라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부처님처럼 깨우쳤으니 더 이상의 탐구할 진리는 없고, 오직 무공용無功用의 수행을 다져서 나아갈 성자의 지위이며, 아라한의 위상位相이다.

"이 보살은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성취한 연고로 제8 부동지에 들어가나니 깊고 깊이 행하는 보살이 되어서 알기 어려우며, 일체 모양과 생각과 일체 집착을 여의며,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일체 성문과 벽지불이 미칠 수 없으며 모든 시끄러움을 여의어서 적멸寂滅이 앞에 나타나느니라. 이 8지 보살은 보살의 마음, 부처의 마음, 보리의 마음, 열반의 마음도 일으키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다시 세간의 마음을 일으키겠는가?" – 화엄경 십지품 –

"제8 부동지 보살이 먼저는 한 몸으로 행을 일으켰지만, 이 지地에서는 한량없는 몸과 음성과 지혜와 태어남과 깨끗한 국토를 얻었으며,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고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문에 들어가고 신통을 갖추고 한량없는 대중이 모인 도량을 가졌으며, 한량없는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으로 짓는 업에 머물러서 모든 보살의 행을 모으되 동요하지 않는 법으로써 하는 연고니라.

또, 광대한 선근善根의 양식을 모아서 대승의 배를 타고서 보살행의 바다에 이르면 잠깐 동안에 공력을 쓰지 않는 지혜〔무공용지無功用智〕로 온갖 지혜의 지혜경계에 들어가는 것을 본래의 공력을 쓰는 행〔본유공용행本有功用行〕으로는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겁을 지내더라도 다 쓰지 못하느니라."

– 무비스님 화엄경 십지품 –

우리가 세속에서 오욕락〔五欲樂재, 색, 수, 명, 식〕을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가더라도 필경에는 선택의 여지없이 잘나고 못나고, 빈부貧富를 가리지 않고 죽음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올여름에는 진짜 깊고 깊은 수행을 통하여 빈 둥지를(허전하고 의미 없는 마음) 찬란한 불성의 광명으로 꽉 채워 보시지 않겠습니까? 8지 보살처럼 생사 없는 무생법인無生法忍으로.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간밤의 빗소리가 요란하여 이른 아침 정원을 둘러보는데,
활짝 핀 부용화가 눈에 들어왔다. 우산을 받쳐 들고 그 앞에 서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너는 빗속에서 이렇게 피었구나 싶어 대견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기죽지 않고 맑은 얼굴을 내미는 녀석과 마주하니
내 마음도 밝아졌다. 빗방울을 머금고 있는 꽃송이는 더 청초하고 선명하다.
도종환 시인의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고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딱 맞다. 빗방울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허리가 출렁하나 어찌 향기를 잃으랴,
빛깔을 잃으랴. 부용화 근처의 코스모스도 흙탕물에 뿌리는 엉망이 되었어도
꽃송이는 싱그럽다. 그 어떤 식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처지에서
조건을 탓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꽃을 피우는 셈이다.
이번 봄에 라임라이트(목수국)을 밭둑길 따라 줄지어 심었다.
이제 한창 필 시기에 우기를 만나 며칠 동안 우중 잠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할 일을 미루지 않고 비를 맞으며 하나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비 그치고 나면 그 꽃길을 걸으며 조촐한 시간을 가질 것이다.
오늘도 고난의 시간을 건너가는 성실한 지혜를 꽃들에게 배운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반드시 쓸쓸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종류의 기쁨이 인생의 갈피마다 남아 있는 까닭이다. 젊은 날은 그 시절의
기쁨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기쁨이 받쳐 주고 있질 않은가. 인생은 그때마다
소중한 사람과 중요한 일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때 열정을 쏟았던
그 사람과 일일지라도 지금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과 마주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이에 따라 기쁨을 주는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다.

지금의 기쁨을 말하라면 정원 뜰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 나이에 나의 뜰이 없었다면 그 어떤 일로 기쁨을 삼았을까 싶다.
이제는 사람과의 교류도 흥미 없고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도 식었다.
그렇지만 정원은 날마다 나를 설레게 하고 가슴 뛰게 한다. 호미를 들고 뜰에 나가면
다양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하기에 무료할 시간도, 심심할 틈도 없다.
정원 식구들과 계절을 같이 보내고 있기에 지루하지 않으며 생동감 가득하다.
이른 아침 나갔다가 땅거미가 질 때 방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다.
내 손길이 가야 할 곳이 한 군데가 아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열 가지 일을 완수하기도 한다.
고장 난 부분 수리하는 일부터 약 치고, 김매고, 잔디 깎고, 가지 치고, 치우는 등
이런 일에 몰입하다 보면 시간을 잊게 된다.
나그네의 눈에는 일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주인 눈에는 모든 게 일로 보이기에
현장을 떠나지 못한다. 잔디 위에 떨어진 낙엽 한 장도 주인이기에 줍고 치우는 것이다.
이러므로 정원사는 꽃밭과 멀어져야 쉴 수 있다는 말이 생겼다.
그렇지만 식물과 교감하는 일이 매일매일 신비롭기에 내 정원을 떠나지 못한다.
헤르만 헤세는 '정원은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물러나 영혼의 평화를 지키는 장소'라고 정의했다.
정원 속에 있으면 누구나 마음이 고요해지고 순화되는 기분을 느낀다.
꽃들을 보며 화를 내거나 시비를 논하는 사람은 없다. 때로는 꽃 앞에서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눠보라. 짐이 훨씬 가벼워지고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이 들수록 흙을 가까이하는 일은 정서 순화에도 좋다. 젊은 날엔 공산품이나
기계를 많이 만지고 살았으니 은퇴 시점에서는 흙을 만져 주어야 손가락에게도
덜 미안할 것이다. 흙냄새의 근원은 '지오스민'이라는 토양 박테리아로 알려져 있는데,
인간의 후각은 흙냄새에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도록 진화되어 있다고 한다.
즉, 흙냄새를 맡거나 만지면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흙을 가까이하면
사람의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근래에는 정원치유, 원예치료도 도입되어 환자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들었다.
달콤한 꽃향기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 반응을 억제시키는
효능 때문이다. 이러한 과학적 논리가 아니더라도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치료 효과는 대단하다.

나는 머리가 복잡하거나 속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숲길을 걷는다. 산책은 찌뿌둥한 기분도



가볍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명의 의사가 있다고 했다.
자연, 시간, 인내다. 삶에 지치거나 몸이 아플 때 자연에 기대면서 세월에게 위로받으며,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사는 일이 가장 우수한 치료법이다.
조선 후기 보정선사가 해남 대흥사에 머물며 엮은 〈백열록柏悅錄〉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신개장포일삼과新開場圃日三過
새로 일군 텃밭, 날마다 하루 산책 세 번.

옛사람들도 텃밭을 새로 일구고 하루에 몇 번씩 그 근처로 발걸음하며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디 세 번뿐 일까. 틈나는 대로 들여 다 보며 관리해 주어야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것이다.
식물을 살피며 생명의 경이를 배우는 것도 인생의 큰 공부다.



화창한 법주사의 여름

자연이 기지개를 펴는 여름 법주사의 하루

마음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꽃일지라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말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

–법구경–

2023. 8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6.15 보름 합창단법회	2 16 미륵재일 철야기도 백중 3재	3 17	4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5 19 광명진언기도
6 20	7 21 다도반법회	8 입추 22	9 23 수능100일기도 입재 백중 4재	10 말복 24 관음재일	11 25	12 26
13 27	14 28	15 광복절 29	16 7.1 초하루신중기도입재 칠석기도 입재 백중 5재 보현회 법회	17 2	18 3 신중기도회향	19 4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20 5	21 6 월탄대종사다례 다도반법회	22 7 칠석기도 회향	23 처서 8 약사재일 백중 6재	24 9	25 10	26 11
27 12	28 13	29 14	30 15 하안거 해제 우란분절 (백중)	31 16 미륵재일 철야기도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소식






① ② ③ ④

1. 7월 8일 천년의 향기 4차
2. 7월 13일 백중입재
3. 7월 18일 초하루
4. 7월 19일 백중초재

법주사 불교전법회관 건립불사 안내




충북지역을 대표하는 '청주불교방송' 사옥 이전 및 도시권 지역민들과의
소통, 화합, 포교 등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한
법주사 전법회관 건립에 교구사부대중 및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후 원** : 안심사 **1,000**만원 (2023년 7월 24일)
개심사 **1,000**만원 (2023년 7월 24일)
■ **동참계좌** : 농협 **351 - 1160 - 2279 - 83** (예금주 : 법주사)

하안거 백일기도

하안거 백일기도는 100일 동안 외부와 단절하고 오직 깨달음을 위해
수행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직 수행과 기도로서
원력을 삼으시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을 이루고자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세속의 번잡함을 여의고
덕 높은 스님들의 수행과 기도의 원력을 받아서 소원성취 이루시길 발원 드립니다.

- **입　　재** : 불기 2567년 **6**월　**3**일(음 4월 15일) 토요일
- **회　　향** : 불기 2567년 **8**월 **30**일(음 7월 15일) 수요일
- **동 참 금** : **2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수능백일기도



2024년 수능 100일기도가 봉행되오니
수능 및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불자님들은
합격의 원을 세우고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입　　재** : 불기 2567년　**8**월　**9**일(음력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67년 **11**월 **16**일(음력 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23년 **8**월 **5**일(음 6월 19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2023년 **8**월 **19**일(음 7월 4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장　소** 법주사 대웅보전

칠월칠석기도

불교에서는 인연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법주사에서는 칠석을 맞아 신도님들의 인연성취 발원을 염원하는 기도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복된 선한 인연을 맺어나가시길 바랍니다.

- **입　　재** : 불기 2567년　**8**월 **16**일(음력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67년　**8**월 **22**일(음력 7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3**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연등 모연문

속리산 법주사 청정도량에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진리의 법광이 비추어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연등동참금

- ■**대웅보전** : 30만원
- ■**능 인 전** : 20만원
- ■**미 륵 전** : 10만원
- ■**삼 성 각** : 10만원
- ■**약 사 전** : 10만원
- ■**명 부 전** : 10만원
- ■**영 가 등** : 10만원

기도동참금

- ■**천 일 기 도** : 70만원
- ■**일년기도** : 30만원
- ■**백일기도(가족)** : 20만원
- ■**백일기도(개인)** : 10만원
- ■**인 등** : 7만원
- ■**3 · 7일 기도** : 5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부처님의 십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출중했던 목련존자의 모친은 이승에서의 삶이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가 모친의 사후 세계가 궁금하여 관법으로 살펴보니, 어머니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며 아들인 목련존자에게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목련존자는 이런 상황을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하안거 해제일인 칠월 보름날에 대중에게 공양을 베풀고 일심으로 모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마침내 대중들의 일심 축원으로 목련존자의 모친은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날이 바로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 또는 백중이라고 합니다. 법주사에서는 7번의 정성스러운 재를 올리면서 조상 천도를 위한 백중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49재 일정

-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 **1재** : **7**월 **19**일(음 6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 **2재** : **7**월 **26**일(음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 **3재** : **8**월 **2**일(음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 **4재** : **8**월 **9**일(음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 **회향** : **8**월 **30**일(음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영가 1위당 **2**만원 기도비 - **3**만원 (49일동안 영가등 밝혀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